

동계 교사 연수 보고서
- 알고 나면 쓸모 있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전략 -
Music Education Teacher Training Report:
Blended Learning Music Class Strategy

김은주* · 정은정**

Eunju Kim · Eunjung Jung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음악교육 동계 교사 연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COVID-19로 인하여 교사 연수가 Zoom을 이용한 화상 강의로만 이루어지던 것이, 2년 만에 다시 대면 연수로 열리게 되었다. 아직 감염병 종식 단계가 아니었기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몇 년만에 열리는 대면 연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초·중등 교사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배움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첫째, COVID-19 상황 이후 학교 현장에서 블렌디드 러닝 형태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 상황에 적합한 블렌디드 러닝 음악 수업 전략을 다룸으로써 실제 적용이 쉽고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음악 수업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둘째,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실과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음악 교육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익힘으로써 음악 수업을 구현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수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하여 전국 초·중등 교사와 음악교육에 관심을 가진 음악교육학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연수 강의는 주제별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공통 강의와 학교급별 강의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강의 주제와 강사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 교수 민경훈)

[공통] 교실에서 바로 쓰는 나만의 국악수업 콘텐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장민지)

* 태봉초등학교 교사, 한국음악교육학회 연수 이사

** 포항고등학교 교사, 한국음악교육학회 연수 이사

[초등] 심미적 감성 역량 기반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사례 (서울인헌초 수석교사 민병선)

[중등] 팝표썸의 폭망한 음악수업 PBL로 되살리기 (용궁중 교사 김혜숙)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음악교육의 방향’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실의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반영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첨단 기술과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음악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발달이 음악교육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음악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도 숙지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 바로 쓰는 나만의 국악수업 콘텐츠’ 강의에서는 실제로 COVID-19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국악 수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활동하는 유튜버로서의 강사님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 지도에 필요한 국악 수업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고 수업을 구성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심미적 감성 역량 기반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사례’ 강의에서는 음악 수업에서의 심미적 경험과 심미적 감성 역량의 의미, 중요성에 관해 고찰해 보고, 이를 위한 예술융합 프로젝트의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의 예술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수업 전략을 체득해 볼 수 있었다.

‘팝표썸의 폭망한 음악수업 PBL로 되살리기’ 강의에서는 중등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PBL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우선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와 절차를 알아보고, 관련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canva와 nearpod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활동을 통해 사례를 통해 다른 내용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하루 간의 짧은 연수 시간이었지만, 참여한 교사들은 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인지하고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블렌디드 러닝 음악 수업의 사례와 기법을 체험하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동안 원격으로 이루어진 연수에 익숙해져 대면으로 연수를 준비하면서 참여와 효과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도 대면 연수를 통한 다양한 실습과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 음악 수업의 재미와 묘미를 느끼도록 해 준 연수였다.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열의 있는 준비를 통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 동참해 주신 김미숙 회장님과 최은아 부회장님, 장소 섭외와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양소영 교수님, 번거로운 절차도 기꺼이 처리해 주신 허수연 재정 이사님, 연수 준비와 추진 과정에 큰 보탬이 되어 준 이지영 간사님 등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과 간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